



농협 진안군지부 '2024 진안홍삼축제' 참여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문화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인정받은 2024 진안홍삼축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리며 홍삼을 메인 테마로 하는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은 이날 초부터 축제가 열리는 10월6일까지 매주 금요일 축제홍보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홍삼 Day를 운영하고 있으며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농협진안군지부를 비롯한 진안지역 농·축·인삼협에서도 홍삼데이 행사를 통한 축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변성섭 지부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홍보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홍·수산 판매는 물론 홍삼만들기 체험, 홍삼랜드 스탬프 투어, 각종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2024 진안홍삼 축제에 많은 관광객 분들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소방서, 시골지역 고령층 119 대응강화 추진

진안소방서는 도내 시골 고령화에 따른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시골지역 고령층 119 대응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1~2023)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는 총 22명으로 전체 61.1%를 차지했다.

올해 1월 한 달에만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도시보다 음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골은 소방서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제때 출동을 해도 적기에 조치하기 쉽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진안소방서에서는 시골 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군에서 운영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마을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는 올해 초 전북도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진안소방서는 진안군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했다.

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응급 호출기) 버튼 하나만(원버튼) 누르면 마을 의용소방대원에게 자동 유선연락 되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진안군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 총 1,060가구의 게이트웨이 설치에 마을 의용소방대 연락망을 사전등록 완료하였으며, 가입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 통화버튼을 꼭 눌러줄 것을 교육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이웃돕기 성금기탁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회장 안진영)가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안진영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오상호 매일식품(주) 대표, 정경석 (주)에앤에스 대표, 양영복 (주)남꽃 부대표, 박현희 (유)현뚜레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기탁된 성금은 현물 포함 1500만 원 상당으로 저소득 가구와 수혜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진영 회장(씨엔씨커피 대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협의회 회원들과 기탁을 결정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 큰 힘이 될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삼계탕으로 전하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

친봉회, 슬내문화복지관서 척수장애인·독거노인 삼계탕 나눔행사 열어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데, 지난 14일 말복 날은 너무 무더웠다. 그 무더위 속에서 친절 봉사회 회장 임규태와 회원 20여 명은 슬내문화복지관에서 척수장애인 80여 명과 송천2동 거주 독거노인 70여 명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무더위로 지친 척수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한 끼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무더운 말복 막바지 무더위 속 복지관 지하 1층에서는 손질된 닭과 인삼, 대추, 마늘 등 각종 보양식을 넣어서 끓여내 맛 그대로 찜통 속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친봉회원 20여 명과 적십자 봉사대원인 채봉덕 회원 등 22명, 송천2동 봉우회 10여명, 송천동 사무소 직원 10여명 총 62명 봉사자의 아미에 해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어깨는 땀이 범벅이 되어 땀 자국이 선명하게 났다.

특히, 이날 적십자 봉사대원 중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부인 유광수전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장) 여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 말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깊은 울림을 주었다.

200여 마리 분량의 닭을 살기 위해 커다란 솥은 연신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서 참고 있다가 힘이 들었다고 한다. 한참 기운이 34도까지 치솟고 체감온도는 35도가 넘는 이날 뜨거운 솥 앞에서 닭고기 기름을 걷어내며



연신 얼굴에 흐른 땀을 훔치는 적십자 봉사원들은 "남의 입에 삼계탕 한 그릇 넣어드러기가 말복 무더위에 쉽지 않다. 그래도 늘하는 일이기엔 무덤덤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 힘든지 모르겠다"며, 봉사의 참 기쁨을 표현했다.

슬내문화복지관이 장소가 좁은 관계로 이들은 척수장애인의 경우 복지관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독거노인들의 경우 거주 가정으로 배달해서 삼계탕을 드실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날 삼계탕과 함께 정우산도 준비해서 척수장애인에게 나누어 갖기 위해 조금이나마 사랑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봉사회원들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한편, 친절봉사회는 매년 여름에는 삼계탕 봉사를 겨울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연탄배달 봉사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주옥 송천2동장과 오순영 동네복지팀장 이흥희 행정팀장, 김진 시민생활팀장과 직원 5명도 참여해 봉사했으며, 국주영은·김명자·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 박혜숙·이국·이보순·최지은 전주시의원도 참여해 장애인 섬기기에 앞장서서 봉사의 참 의미를 더했다.

/오만호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팀, 제8기 사회복지대학 졸업식

진안군사회복지팀의회는 지난 16일 제8기 사회복지대학(학장 임경빈)졸업식을 신림초장 3층에서 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동창용 군의장 및 의원, 협의회 직원, 졸업생 등 50명이 참석했다.

사회복지대학에서는 지난 4월 4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20회차 일정으로 군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자발적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군수특강, 사회복지 실천 사례, 복지와 경제, 웰다잉, 웃음 치료, 졸업여행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학생 대표 김창강 학생은 "매주 수업이 있는 목요일이면 살리는 기분으로 수업에 참석했는데, 이제는 소소한 즐거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도동동, 찾아가는 소통행정 간담회 마무리

남원시 도동동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22개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소통 행정 간담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22개 경로당을 방문, 시청 사항 홍보, 불만 사항 현장점검, 생활민원 등 주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휴가철 입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의 참석한 이번 소통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중한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해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장 방문

남원시체육회 류흥성 회장은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 육대회를 한달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종북별 선수단 훈련장을 찾아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했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도민체전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열리며, 남원시는 지난 제6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9위로 불리이 2연패, 게이트볼이 5연패로 우승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에는 35개 종목 682명이 출전해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류흥성 회장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민속경기 종목을 시작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볼링장, 탁구장, 궁도장, 복싱장 등 차례로 방문해 선수들 선전을 기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산면, 면민 소통 간담회 진행

남원시 대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류창)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마을회관 15개소를 찾아가 소통과 화합을 위한 면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활인구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운영 중인 '남원누리시민제도'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보',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 등 남원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주요 시정을 안내하였다.

또한 사랑의 빨래방, 증명사진 인화 서비스, 영농 보조사업 문자서비스 등 주민 편의 시책을 설명하고 마을별 추진사업 안내와 더불어 주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회 장수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 성료

(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북본부 및 장수군 지부가 주최한 제2회 장수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가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수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는 농촌문화예술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하고 전국의 노래 동호인들의 초청으로 청전지역에서 관광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하고자 열렸으며, 올해는 전주매일신문사 장수문화원, 천천면 대명가요TV가 후원하고, (주)장수터엔시, (주)서광수술소장, 황금농장, 나뭇리조트, 장계농협, 백송화관 등이 합찬했다.

이날 가요제에서 김양옥(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회장 겸 새진주 천천면향우회장 손명연(서광수출소장 (주)대표 이사) 황금석(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이사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 김남수 장수군의원, 박선진·이남숙 전주시의원, 황현철 장수군 천천면장 등 내빈들과 천천면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가요제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함께 진행된, 한국도 멜로, 성악합창공연, 가수축하공연, 대공연 주, 동등구루무 공연 등도 가요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가요제 대상은 '휴수저'를 부른 한기남(익산)씨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정윤덕(경북 구미)씨가 차지

/김재훈기자·장수=고관호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중봉·구천동 휴식공간 조성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저지대(구천동 어사길)와 고지대(중봉 일원)에 탐방객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탐방객 관정의 공원 이용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공원 현장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중봉 일원은 탐방객 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는 위험 사례가 많았다. 새롭게 설치한 공간은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휴대용 방석을 갖춰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자연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최영국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휴식공간 조성으로 탐방객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탐방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제2회 정읍 웹툰 공모전 시상식 열려

정읍시는 지난 14일, 지역의 매력을 알릴 참신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정읍 웹툰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에서 총 38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역사를 지킨 정읍의 두 선비'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두 선비(안, 손흥락)의 용기와 헌신을 다룬 웹툰이다. 사실에 근거한 탄탄한 스토리와 매끄러운 표현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예가 이삼민의 일대기를 그린 '뽕과 붓과 단풍'이 차지했으며, '기묘한 정읍기행'과 '막무정음 시무 민주 혁명의 고장 정읍'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읍의 역사와 매력을 잘 담아낸 작품들이 많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기자